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 -실태와 전망-

윤 소 영 (숭호대학 교수)

### I. 서론

주 5일 근무제는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쉰다는 의미인데, 주 5일 근무제의 형태는 다섯가지로 매주 토요일을 휴무하는 완전 주 5일 근무제, 월 3회 주 5일 근무제, 격주 주 5일근무제, 월 2회 주 5일 근무제, 월 1회 주 5일 근무제 등이 있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미국에서는 예컨대 주 5일 또는 4일·3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음에 비해 일본에서는 주휴이일제(週休二日制)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 5일 근무제가 관심이 되기 시작한 것은 IMF 위기 이후 노사정 위원회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수의 감소를 완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의도에서 합의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근로시간의 단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자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최근 주 5일 근무제 또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논의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을 최소화하고, 필요노동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였을 때 남게되는 가처분 시간을 늘이자는 의도도 있지만, 또한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자유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데 있다. 결국 주 5일 근

무의 목적은 개인의 '삶의 질'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렇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시간동안 무엇을 하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의 문제와 노동하는 장소 이외에 자유시간동안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가의 문제가 남게된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의 최소단위인 가족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가족들은 개인의 자유시간동안 노동의 장소가 아닌 휴식이 가능한 가정안에서 자유시간을 최대한 누릴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자유시간동안 개인적인 여가활동도 증가하지만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중심적인 여가활동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주 5일 근무 또는 노동시간 단축이 절대적으로 가족의 가정생활의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와 관련된 논의들은 노동자의 노동현장인 고용주와의 관계나 소득감소의 문제, 그리고 소비시장에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나 여가문화산업의 성장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정생활 및 가정내 여가활동으로 대체되는 변화 추이나 과정에는 아직까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 5일 근무제도입이라는 노동시간단축현상이 가정생활의 구조 및 관계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 경제생활, 가사노동, 여가생활 등 4가지 영역에 걸쳐 그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듯이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가족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인 소득과 지출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가정내 부부의 역할분담과 가사노동시간량에 변화가 있는지, 개인적인 여가활동과 가족여가활동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여가에 대한 경험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르며, 특히 가족구조나 가정생활이 여성의 여가 경험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 몇몇 연구들(Henderson, 1994; Deem, 1990; Shaw, 1985; Colly, 1984)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경험과 그로 인한 가정생활 및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주5일 근무제 시행의 영향력에 대한 조사연구

지난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

해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에 합의를 이루고, 2001년 7월 23일 제도도입을 위한 대통령의 지시이후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과 조사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물의 목록과 그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5일 근무제 여론조사(2000.5; 민주노총·한길리서치공동;  
<http://5days.nodong.org>)**

민주노총과 (주)한길리서치연구소가 2000년 5월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정노동 시간을 현재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77.8%가 찬성한다(적극 찬성:37.6%+찬성하는 편:40.2%)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20.0%(적극 반대:16.7%+반대하는 편:3.3%)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4배 정도 더 많았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을 경우 새로 생긴 휴일 활용 방안에 대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취미생활 및 여행 등 여가를 즐긴다(28.6%), 공부/강습 등 능력개발에 투자한다(15.4%), 휴식으로 육체적 피로를 푼다(5.9%), 자원봉사 등 공익적 활동에 참여한다(3.1%) 순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시기에 대해 2001년(2000년 포함)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로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들이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2002년부터(14.3%), 2005년 뒤에(9.4%), 2003년부터(8.8%), 2004년부터(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시할 필요 없음 5.0%, 잘모름/무응답 4.7%였다. 주5일 근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인 반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20.0%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주5일 수업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주5일 수업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4%(적극 찬성:29.3%+찬성하는 편:41.1%)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6.9%(적극 반대:6.3%+반대하는 편:20.6%)로 나타나 주5일 수업제 역시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의 실시 관계에 대해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01. 8.1;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가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제주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

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Telephone-Interview)(조사일시: 2001년 7월 30일~7월 31일, 표본추출: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 결과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74.1%가 찬성(적극 찬성:33.5%+찬성하는편:40.6%) 했으며, ‘주5일 근무제’ 도입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77.2%였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방법으로는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35%)는 의견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3.4%)는 의견이 더 많았다.

### 3.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2000. 11; LG경제연구원)

LG 경제연구원은 노동시간단축이 야기하는 뉴 트렌드-여가트렌드, 노동트렌드, 시장트렌드-를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되풀이해왔던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이 90년대 들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시간단축(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 도입 등)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생활은 기존의 휴식 위주의 패턴에서 취미생활, 자기개발, 레저 등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혁

여가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단축으로 양적 측면에서 여가의 절대시간이 늘어나는 데다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개인 생활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성 점차 증대</li> <li>▣ 시간소비형 여가의 증가, 가족중심형 여가, 여가의 문화화 및 학습화, 여가의 디지털화와 탈디지털화의 공존, 참여형·체험형 여가증대</li> </ul>
노동트렌드 (노동시장 구조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 유연화, 지식근로자의 등장 추세와 맞물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가속화</li> <li>▣ 비정규직의 증가, 연봉제 확산, 근로자의 자기개발붐, 다중직업인의 확산, 여성의 노동참여 가속화</li> </ul>
시장트렌드 (새로운 시장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단축은 소비증가를 유도함으로써 내수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형성</li> <li>▣ 평균소비성형의 증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장, 문화·교양·교육산업 신장, 가사 대형산업의 증가, 기업 외부시장의 증가</li> </ul>

출처 : LG경제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p.33

신을 가져올 것이며, IT혁명 등의 여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기업의 인사전략이나 근로자의 의식 등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증가, 연봉제 확산 등 일상적인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소비성향 증대를 통해 소비시장을 양적으로 팽창시키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시장을 확대시키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 **4.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2001.9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는 2001년 3/4분기 소비자태도 부가조사로 주5일 근무제와 여가 및 문화활동의 빈도수와 지출액을 조사하였다(조사기간: 2001년 8월 9일~8월 14일, 표본추출: 전국 주택전화 가입자 중 지역, 경제력, 인구분포 등을 감안하여 RDD방식으로 1,000가구 추출, 조사방법; 전화인터뷰). 조사결과 우리나라 가계는 아직까지 여가보다 소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 중 53%가 여가를 조금 줄더라도 더 많은 소득을 원하고 있으며, 21%는 여가를 선호하고 26%는 현 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연간수입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종별, 성별로 소득과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구분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다른 직업에 비해 봉급생활자가,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보다 여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찬성 여부에 대해서 전체 가계의 51.7%가 찬성하며, 이 중 20대의 85.6%가 찬성한 반면 50세 이상은 35.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학력별로도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 대졸자의 64%가 찬성한 반면 중졸자는 25.5%만이 찬성하였으며, 봉급생활자 중 69.3%가 찬성한 반면 자영·전문직의 경우는 41.1%가 찬성하였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늘어난 휴일 시간동안 전체의 47.4%가 가족과 함께 2일의 휴가를 보낼 것이며 22.2%는 드라이브, 등산, 여행 등에 시간을 보낼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기계발(14.9%), 스포츠활동(4.1%), 연극/미술/음악 관람(1.7%), 독서/연구(0.4%) 등의 여가활동을 보고하였으며, 그외 자원봉사, 쇼핑 등의 여가 패턴이 제시되었다.

## **5. 주5일 근무제 실시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2002. 8. 7 ; 여가문화학회/화학회/MBC 공동)**

여가문화학회와 MBC는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6대 특/광역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의 주 5일제 실시 시중 은행직원 500명과 주 5일제 비실시 일반 상장 기업직업 30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2002년 8월 5일~8월 6일)를 실시하였다. 주 5일 근무제가 은행권에서 실시된 1달동안 은행직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여가활동(복수응답)은 가족과 함께 지내기(41.6%)이며, 그 다음으로 집에서 휴식/TV보기(32.2%) 순이었는데,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직원들은 집에서 휴식/TV보기(44.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디어 활동(30.2%), 가족과 함께 보내기(29.5%) 순이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 후 희망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은 실시집단의 경우 여행(36.6%), 자기개발(29.8%), 스포츠 활동(29.2%), 레저활동(25.6%), 가족과 함께 지내기(22.8%) 순이었으며, 비실시집단은 여행(62%), 스포츠활동(30.2%), 레저활동(27.6%), 가족과 함께 지내기(21.1%) 순이었다. 주 5일제 시행에 의한 긍정적 변화로는 실시집단의 경우 삶의 질(34.8%)을, 비실시집단의 경우 자기개발(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주5일제 실시이후 부정적인 변화로는 실시집단이나 비실시 집단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그외에 두 집단 모두 비용문제와 증가된 소비문제를 제시하였다. 결국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서 실시집단의 94.6%와 비실시집단의 89%가 찬성하였으며, 연봉감소를 가정한 상황에서도 두 집단 각각 84.8%와 75.5%의 찬성을 나타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시행전과 비교해 가정일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두 집단 모두 80% 이상의 높은 비율이었다.

## **6.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2002. 8. 24 ; 여가문화학회)**

여가문화학회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1달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은행 및 일부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부인들 169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변화를 조사(조사일시: 2002년 8월 7일~8월 19일)한 바 있다. 조사대상자인 주부들은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대해 대부분(92.9%)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항목은 경제환경(가정의 소득 및 소비)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 여가활동의 변화를 다루었다. 경제환경의 변화 측면에

서 대부분의 주부들은 소득이 줄더라도 주 5일 근무제를 찬성(78%)하였으며,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주부들은 소득의 변화보다 소비지출의 변화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주부들은 가족여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관계가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으며(86.4%), 남편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질 것(93.5%)이고, 부부관계도 평등한 관계가 될 것(53.3%)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에 대하여 그저 그럴 것으로 생각하거나(36.7%),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8.3%)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주 5일제 실시 이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와 연관지어 본다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약간 증가(51.5%)한 것으로 응답한 주부들이 가장 많았다. 여가활동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변화한 생활시간은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외에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활동은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조사설계

####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주 5일 근무제 실시 기관(은행권, 행정기관, 일반 상장기업)의 종사자 남편과 그들의 아내

※ 최근 여가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이나 ‘gender’를 함께 연구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가에 대한 사회화 과정의 남녀차이와 그로 인한 여가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다른 경험 및 인식차이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gender 여가에 대한 연구들에는 여성의 가정생활 및 가족원간의 관계요인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gender, leisure, family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들로는 S. M. Shaw, K. A. Henderson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여가생활의 변화가 가정생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험이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경험과 다른 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에 조사대상자를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그들의 아내들로 한다.

- ㄸ 조사규모 : 남편 182명, 아내 182명
- ㄸ 조사방법 : 남편용과 아내용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 ㄸ 조사기간 : 2002년 10월 18일~11월 5일

## 2. 주요조사항목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ㄸ 남편 직업, 연령, 학력
- ㄸ 아내 취업여부, 연령, 학력
- ㄸ 가정소득

### 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의견

- ㄸ 주 5일 근무제 찬성, 주 5일 학습제와 병행실시, 시기의 적절성, 가정생활의 변화
- ㄸ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 ㄸ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가정생활의 가장 큰 변화 영역
- ㄸ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가정생활에서 변화가 없는 영역

### 3) 가족관계의 변화

- ㄸ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변화의 기대
- ㄸ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가족여행의 경험
- ㄸ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실제 부부의 대화시간, 가족끼리의 여행(나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친지방문, 부부 공동여가활동의 변화정도
- ㄸ 주 5일 근무제 실시이후 성관계의 변화정도

### 4) 경제생활의 변화

- ㄸ 소득의 변화여부
- ㄸ 다른 가족원의 부업계획
- ㄸ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가정지출비 변화
- ㄸ 한달 평균 여가생활을 위한 실제 지출비(개인가족)



ㄸ 한달 평균 여가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출비(개인/가족)

ㄸ 주말농장, 콘도, 전원주택 구입의사

#### 5) 가사노동의 변화

ㄸ 가사노동 각 영역별 변화

ㄸ 지난 1주 동안 가사노동에 참여한 시간(평일/토요일/일요일)

ㄸ 성역할태도(10문항)

#### 6) 여가활동의 변화

ㄸ 여가와 노동의 관계

ㄸ 개인여가활동에 대한 의견(4문항)

ㄸ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의견(5문항)

ㄸ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전 주말 여가활동 빈도

ㄸ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주말 여가활동 빈도

ㄸ 지난 주말동안의 여가활동(중복응답)

## IV. 주 5일 근무제와 가정생활 및 여가 실태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182명의 남편들 중 66.5%가 일반 상장기업에 다니며, 2002년 7월 1일부터 전격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 은행권에서 일하는 남편은 28.6%,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은 4.9%였다. 이 남편의 아내 가운데 55.5%는 전업주부이며 나머지는 full-time 취업을 하거나 part-time 취업 및 부업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남편과 아내의 평균 연령은 각각 35.7세와 33.3세 였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대졸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자도 각기 29.7%, 14.8%나 되었다. 이들 가정의 한달 평균 가정소득은 283만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편( N=182)				아내( N=182)			
변수		빈도	백분율(%)	변수		빈도	백분율(%)
직업	은행원	52	28.6	취업 유무	취업주부	74	40.7
	공무원	9	4.9		전업주부	101	55.5
	회사원	121	66.5		부업	7	3.8
연령	28-34세	100	54.9	연령	25-29세	59	32.4
	35-39세	45	24.8		30-39세	98	53.9
	40-58세	37	20.3		40-55세	25	13.7
학력	고졸	2	1.1	학력	고졸	13	7.1
	대졸	126	69.2		대졸	142	78.0
	대학원졸	54	29.7		대학원졸	27	14.8
변수		Mean		변수		Mean	
평균 남편연령(세)		35.7		평균 가정소득 (만원)	283.09		
평균 아내연령(세)		33.3					

## 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의견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84.6%와 아내의 7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2-1), 남편과 아내의 찬성의견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2-2). 즉 아내와 비교해 남편이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주 5일 학습제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편(65.9%)과 아내(70.4%)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사 824명과 학부모 6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교사들은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그리고 학부모들은 주 5일 근무제 정착이후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것을 선호한다고 밝힌 결과와 다소 다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주 5일 수업제를 기업체 및 공공부문 등과 보조를 맞춰 도입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문보다 조금 늦게 도입해야 한다’(한국일보, 2001, 7. 28)면서 2003년 이후 도입할 것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조사대상 부부들은 주 5일제와 함께 주 5일 학습제의 실시를 함께하길 선호하였다.

<표 2-1>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의견

주 5일 근무제 시행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찬성한다	매우 그렇다(5)	87	47.8	59	32.4
	대체로 그렇다(4)	67	36.8	78	42.9
	보통이다(3)	16	8.8	36	19.8
	대체로 그렇지 않다(2)	8	4.4	7	3.8
	전혀 그렇지 않다(1)	2	1.1	0	0
	결측치	2	1.1	2	1.1
2. 주5일 학습제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5)	63	34.6	58	31.9
	대체로 그렇다(4)	57	31.3	70	38.5
	보통이다(3)	38	20.9	30	16.5
	대체로 그렇지 않다(2)	18	9.9	22	12.1
	전혀 그렇지 않다(1)	3	1.6	1	0.5
	결측치	3	1.6	1	0.5
3. 우리나라 여건상 시기상조이다	매우 그렇다(5)	6	3.3	10	5.5
	대체로 그렇다(4)	41	22.5	42	23.1
	보통이다(3)	47	25.8	71	39.0
	대체로 그렇지 않다(2)	47	25.8	35	19.2
	전혀 그렇지 않다(1)	38	20.9	22	12.1
	결측치	3	1.6	2	1.1
4. 가정생활에 큰 변화는 없다	매우 그렇다(5)	6	3.3	4	2.2
	대체로 그렇다(4)	39	21.4	42	23.1
	보통이다(3)	45	24.7	51	28.0
	대체로 그렇지 않다(2)	61	33.5	57	31.3
	전혀 그렇지 않다(1)	30	16.5	27	14.8
	결측치	1	0.5	1	0.5

주 5일 근무제 실시 시기에 대해 남편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46.7%), 아내의 경우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39.0%). 주 5일 근무제 실시 시기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2-2). 즉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반수 정도는 주 5일 근무제가 가정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표 2-2>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 : 남녀 차이 분석

“나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전체 (평균)	t 검증				t 값
		남편		아내		
		평균	S.D.	평균	S.D.	
1. 찬성한다	4.16	4.27	.88	4.05	.83	2.46*
2. 주 5일 학습제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3.89	3.89	1.05	3.90	1.01	-.06
3. 우리나라 여건상 시기상조이다	2.76	2.61	1.15	2.91	1.07	-2.53*
4. 시행이후 가정생활에 큰 변화는 없다	2.64	2.61	1.10	2.66	1.06	-.44

\* p<.05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 중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남편(57.1%)과 아내(65.9%) 모두 가족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외 남편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29.1%나 되어 아내의 18.1%보다 훨씬 많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은 2.7%인 반면 아내는 그보다 3배 이상이 많은 8.2%의 사람들이 보고하였다. 한편,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로는 남편(54.4%)과 아내(43.4%) 모두 소비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내들은 가정내 역할부담이 증가하였다(27.5%)는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많이 보고되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생활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람들도 남편의 8.8%, 아내의 9.3%나 되었다(표 2-3).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데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늘어난 주말동안의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증가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아내들은 가족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내 역할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며, 남편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생활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가장 큰 가정생활의 변화는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관계의 개선과 여가활동의 증가를 들었으며, 가장 변화가 없는 가정생활 영역으로는 가사노동시간이었다(표 2-4).

〈표 2-3〉 주 5일 근무제 시행의 긍정적·부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남편 (N=182)		아내 (N=182)		부정적 변화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자기개발에 도움	53	29.1	33	18.1	소비 증가	99	54.4	79	43.4
가족관계에 도움	104	57.1	120	65.9	비계획적 시간사용	22	12.1	16	8.8
교우관계에 도움	4	2.2	0	0	수입 감소	24	13.2	18	9.9
업무 효율성에 도움	15	8.2	14	7.7	가정내 역할부담 증가	19	10.4	50	27.5
별다른 혜택 없음	5	2.7	15	8.2	별다른 변화 없음	16	8.8	17	9.3
기타	1	0.5	0	0	기타	2	1.1	2	1.1

〈표 2-4〉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가정생활의 변화

가장 큰 변화	남편 (N=182)		아내 (N=182)		변화가 없는 영역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경제생활	43	23.6	28	15.4	경제생활	26	14.3	38	20.9
가족관계	60	33.0	76	41.8	가족관계	34	18.7	31	17.0
가사노동시간	18	9.9	23	12.6	가사노동시간	80	44.0	73	40.1
여가활동	60	33.0	53	29.1	여가활동	22	12.1	22	12.1
기타	1	0.5	2	1.1	기타	18	9.9	17	9.3
					결측치	2	1.1	1	0.5

### 3.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가정생활의 변화

#### 1) 가족관계의 변화

주 5일 근무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의 최소단위인 가족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생활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는 조금 줄더라도, 오히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나눔으로써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정서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경제연구소(2001) 자료에서 오히려 소득층이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현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때문이라기 보다 그만큼 일보다 여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즉 핵가족화, 소가족화 그리고 친족관계가 약화되면서 훌륭한 대리부모의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재, 횡적 인간관계의 학습의 주요요소인 형제수의 감소, 친족과 이웃과의 소원한 인간관계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이혼 및 별거가 증가하고 아버지의 회사 인간화에 따른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역할이 실종되면서 청소년은 더욱 방황하게 된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본 조사에서 주 5일 근무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거나(남편 22%, 아내 19.8%) 갈등이 심해지거나 소원해졌다(남편 3.2%, 아내 3.8%)는 응답자들보다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남편 74.7%, 아내 76.4%)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측면에서 남편(79.6%)과 아내(70.9%) 모두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남편(18.8%)보다 아내(27.5%)가 더 많이 했다(표 3-1-1)

〈표 3-1-1〉 주 5일제 근무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부부관계	남편 (N=182)		아내 (N=182)		부모 자녀 관계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관계가 더 돈독해 짐	136	74.7	139	76.4	관계가 더 돈독해 짐	144	79.1	129	70.9
큰 변화가 없을 것임	40	22.0	36	19.8	큰 변화가 없을 것임	34	18.7	50	27.5
갈등이 더 심해질 것임	5	2.7	6	3.3	관계가 소원해질 것임	3	1.7	3	1.6
관계가 소원해질 것임	1	0.5	1	0.5	결측치	1	0.5		

조사대상자 부부들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족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여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가 본 적이 없

거나(남편 58.2%, 아내 53.3%) 여행계획을 세우지도 않은(남편 8.8%, 아내 14.3%)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3-Ⅱ-2). 이러한 결과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을 계기로 가족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지만 실제로 부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Ⅱ-2〉 주 5일 근무 시행 후 여행경험 유무

여행경험 유무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있음	59	32.4	56	30.8
계획 있으나 가본적 없음	106	58.2	97	53.3
계획도 없고, 가본 적도 없음	16	8.8	26	14.3
결측치	1	0.6	3	1.6

한편,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실제 나타난 가족관계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부의 대화시간, 가족끼리의 여행이나 나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친지방문, 부부의 공동여가활동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3-Ⅱ-3).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늘어났다(남편 80.2%, 아내 73.6%)고 하였으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아내들(23.6%)이 남편들(18.7%) 보다 더 많았다. 가족끼리의 여행이나 나들이의 횟수가 더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 모두 60%이상 답하였다.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30.2%, 37.9%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시간이 늘어난 남편과 아내는 각기 55.5%, 44.9% 였으며 이 역시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없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주 5일 근무제 실시후 늘어난 휴일동안 부모나 조부모를 비롯한 친지방문의 시간은 반수 이상이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부부의 공동여가활동은 남편과 아내 모두 50% 이상이 늘어났다고 보고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제 시행이후 가족관계적 측면은 그 빈도나 시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관계적 측면의 변화는 핵가족내의 부부와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더 빈번

〈표 3-①-3〉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정도

가족관계의 변화내용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부부의 대화시간	많이 늘어났다(5)	30	16.5	27	14.8
	약간 늘어났다(4)	116	63.7	107	58.8
	변화없다(3)	34	18.7	43	23.6
	약간 줄어들었다(2)	1	0.5	2	1.1
	많이 줄어들었다(1)	0	0	0	0
	결측치	1	0.5	3	1.6
2. 가족끼리의 여행/나들이	많이 늘어났다(5)	16	8.8	18	9.9
	약간 늘어났다(4)	106	58.2	92	50.5
	변화없다(3)	55	30.2	69	37.9
	약간 줄어들었다(2)	0	0	0	0
	많이 줄어들었다(1)	0	0	0	0
	결측치	5	2.7	3	1.6
3.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많이 늘어났다(5)	19	10.4	25	13.7
	약간 늘어났다(4)	82	45.1	75	41.2
	변화없다(3)	67	36.8	73	40.1
	약간 줄어들었다(2)	0	0	0	0
	많이 줄어들었다(1)	0	0	0	0
	결측치	14	7.7	9	4.9
4. 친지(조부모 등) 방문	많이 늘어났다(5)	17	9.3	16	8.8
	약간 늘어났다(4)	54	29.7	49	26.9
	변화없다(3)	102	56.0	113	62.1
	약간 줄어들었다(2)	4	2.2	0	0
	많이 줄어들었다(1)	0	0	0	0
	결측치	5	2.7	4	2.2
5. 부부의 공동여가활동	많이 늘어났다(5)	21	11.5	16	8.8
	약간 늘어났다(4)	72	39.6	81	44.5
	변화없다(3)	82	45.1	80	44.0
	약간 줄어들었다(2)	2	1.1	2	1.1
	많이 줄어들었다(1)	0	0	0	0
	결측치	5	2.7	3	1.6

해지는 것이지, 조부모나 다른 확대가족 및 친지들과의 방문이나 교체횟수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 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가족중심적인 활동이나 관계



개선이라는 내용에서 노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된다.

그리고 부부의 대화시간을 제외하고 가족여행이나 자녀와의 놀이, 부부공동의 여가활동 등에서 그 변화양상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응답한 사람들 다음으로 30-40%이상의 응답자들은 이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앞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예측을 질문한 것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경우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20.9%,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는 23.1% 수준이었던 것(표 3-1-1)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치이다. 즉 현재 남편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정은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그 이전과 비교해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여전히 변화없이 생활하는 가정도 30-40%나 된다. 그렇지만 이들 중 일부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서 변화가 없다고 예상하기 보다는 더 돈독해 질것이거나 오히려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한다.

주 5일 근무 시행이후 부부관계의 측면에서 성관계의 횟수가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약 77%정도의 응답자들이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다(표 3-1-4).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35명과 34명이 늘어난 성관계 횟수를 보고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 3명과 4명이 오히려 성관계 횟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응답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결측치를 고려하면 거의 같은 수치임) 부부간의 성관계 측면은 부부간의 의견일치도가 높다고 여겨진다.

〈표 3-1-4〉 주 5일 근무제와 성관계 변화

성 관계 변화	남편( N=182)		아내(N=18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휴일이 늘어 성관계 횟수 증가	35	19.1	34	18.7
성관계 횟수 변화 없음	141	77.5	139	76.3
성관계 횟수 오히려 감소	3	1.7	4	2.2
결측치	3	1.7	5	2.8

## 2. 경제생활의 변화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는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다. 미시적으로 개별 가정에서는 노동시간의 감소로 전체 평균 가정소득의 감소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예상한다.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들은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전체 가계 중 52.5%가 여가를 조금 줄더라도 더 많은 소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여가보다는 소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6일제 근무보다 주 5일제 근무를 선택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기준으로 100만원까지에 대다수가 집중되어 휴일보다는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가정의 소득감소 뿐 아니라 늘어난 주말시간동안의 여가활동을 위한 소비지출의 증가도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를 198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오다가 1997년 전 사업장에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2000년 현재 레저나 오락, 교제비, 용돈 등의 여유성 소비지출의 비중이 30.5%에 이르러<sup>1)</sup> 주 5일 근무가 가정의 소비지출구조의 변화와 그 지출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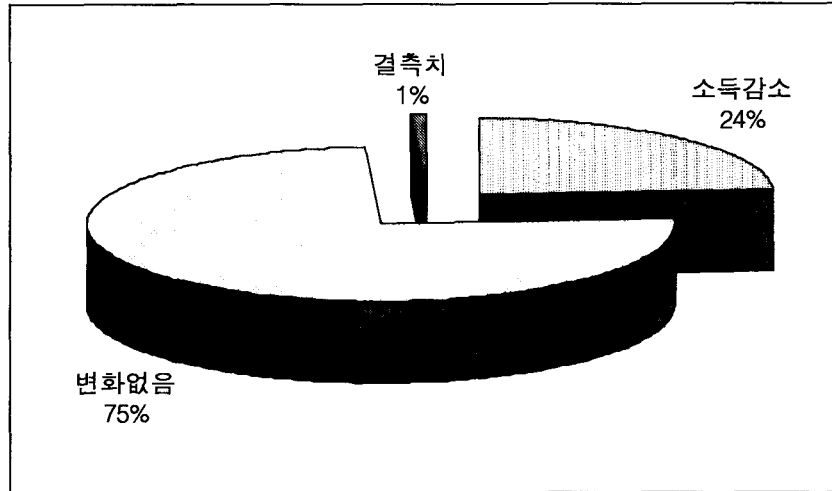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로 여가시간이 증대되면 소비가 늘게 마련일 것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저축의 감소와 시중자금 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틀 휴일동안의 소비를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요구하다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업계가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의 문제(동아일보 2000. 10. 23 사설)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조사대상 남편들에게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가정내 소득이 감소하였는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했으며, 24%만이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 감소가 예상되지만, 조사 대상자들이 은행원과 일반 상장기업의 직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법적으로 정착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일부 유급 월차 수당이나 다른 수당으로 소득 감소를 충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2)</sup>.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조사남편 182명 가운데 44명, 24.2%)한 봉급생활자들은 1달 평균 161,560원의 소득감소를 보고하였으며, 1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남편들이 42.2%로 가장 높았고 15만원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남편들이 15.6%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1) 같은해인 2000년 우리나라 가계의 여유성 소비지출비중은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23.0%로 월 37.6만원을 소비하고 있다(도시가계연보, 2000년 기준, LG주간경제 2001.8.8. 참고)

2) 실제 조사자 중 일부에게 추후 전화인터뷰를 통해 질문한 결과, 1달 평균 월급의 감소가 없는 이유로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으로 충당되고 있거나 월급인상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림 2-1>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소득의 변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남편이나 다른 가족원들이 부업을 찾으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 남편이나 아내 모두 전혀 계획이 없다(남편 68.7%, 아내 67.6%)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일을 찾고 싶으나 쉽지 않다(남편 23.6%, 20.9%)는 응답과 다른 부업을 하거나 계획 중이다(남편과 아내 모두 5.5%)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남편이나 다른 가족원의 부업의사

부업의사 여부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계획이 없다	125	68.7	123	67.6
다른 일을 찾고 싶으나 쉽지 않다	43	23.6	38	20.9
다른 부업을 현재 하거나 계획 중이다	10	5.5	10	5.5
결측치	4	2.2	11	6.0

주 5일 근무제 실시후 조사 대상자 가정의 여가활동 관련 지출비의 변화실태는 <표 2-2>와 같다. 이전과 비교해 외식비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비 및 연료비의 지출은 전체 응답자의 75% 이상, 쇼핑

관련 비용 및 물품구입비는 전체 응답자의 60%, 여행비는 전체 응답자의 56%이상이 지출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 이후 지출의 변화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종교활동참가활동비(90.7%)이며, 다음으로 통신비/장비구입비(79.2%), 학습관련 강습비/교제비(78.9%), 도서구입비(66%), 레저스포츠 및 신체단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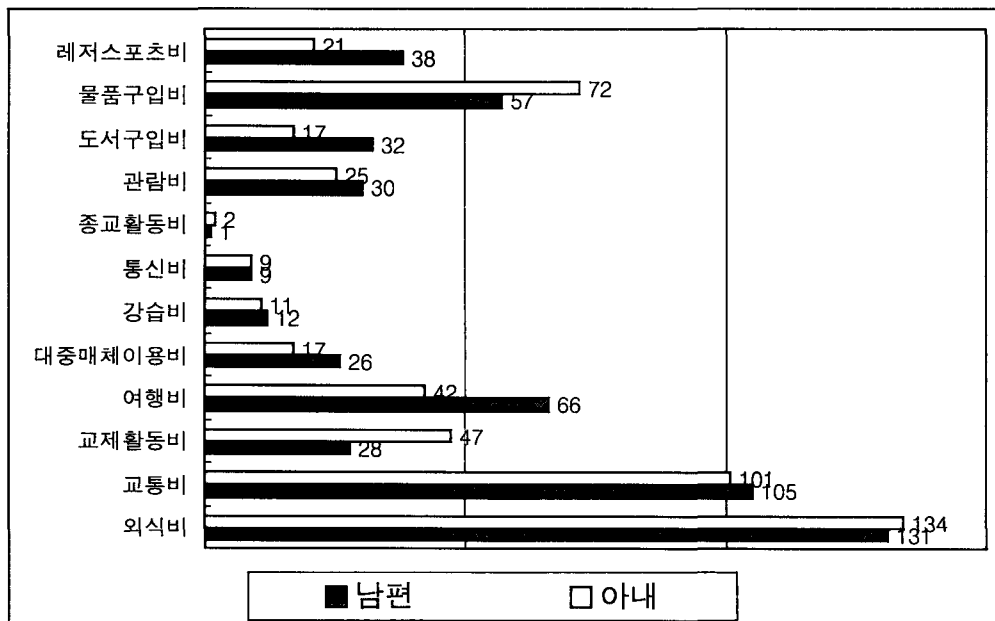
<표 2-2>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가정의 여가활동 관련 지출비 변화

지출항목	남편( N=182)		아내 (N=182)		“주 5일 근무 실시 후...”	지출항목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1. 외식비	14	7.7	13	7.1	많이 늘어났다(5) 약간 늘어났다(4) 변화없다(3) 약간 줄어들었다(2) 많이 줄어들었다(1)	7. 통신비 및 장비구입비	0	0	2	1.1
	137	75.3	131	72.0			41	22.5	31	17.0
	30	16.5	38	20.9			139	76.4	149	81.9
	1	0.5	0	0			2	1.1	0	0
	0	0	0	0			0	0	0	0
2. 교통비 및 연료비	11	6.0	11	6.0	많이 늘어났다(5) 약간 늘어났다(4) 변화없다(3) 약간 줄어들었다(2) 많이 줄어들었다(1) 결측치	8. 종교활동 참가비	2	0.5	1	0.5
	132	72.5	122	67.0			16	8.8	7	3.8
	35	19.2	46	25.3			160	87.9	170	93.5
	3	1.6	3	1.6			2	1.1	3	1.6
	1	0.5	0	0			0	0	0	0
3. 교제 활동비	4	2.2	7	3.8	많이 늘어났다(5) 약간 늘어났다(4) 변화없다(3) 약간 줄어들었다(2) 많이 줄어들었다(1)	9. 스포츠경기 및 영화 관람비	2	1.1	2	1.1
	77	42.3	80	44.0			76	41.8	72	39.6
	99	54.4	95	52.2			104	57.1	108	59.3
	2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여행비	5	2.7	7	3.8	많이 늘어났다(5) 약간 늘어났다(4) 변화없다(3) 약간 줄어들었다(2) 많이 줄어들었다(1)	10. 도서구입비	3	1.6	2	1.1
	103	56.6	89	48.9			61	33.5	57	31.3
	74	40.7	86	47.3			118	64.8	122	67.0
	0	0	0	0			0	0	1	0.5
	0	0	0	0			0	0	0	0
5. 대중매체 이용 및 대여비	1	1.1	0	0	많이 늘어났다(5) 약간 늘어났다(4) 변화없다(3) 약간 줄어들었다(2) 많이 줄어들었다(1)	11. 쇼핑관련 비용 및 물품구입비	11	6.0	13	7.1
	75	41.2	78	42.9			95	52.2	98	53.8
	104	57.1	100	54.9			75	41.2	70	38.5
	1	0.5	3	1.6			1	0.5	1	0.5
	0	0	1	0.5			0	0	0	0
6. 학습관련 강습비 및 교제비	2	1.1	0	0	많이 늘어났다(5) 약간 늘어났다(4) 변화없다(3) 약간 줄어들었다(2) 많이 줄어들었다(1) 결측치	12. 레저스포츠 및 신체단련비	10	5.5	4	2.2
	37	20.3	34	18.7			67	36.8	54	29.7
	141	77.5	146	80.2			104	57.1	122	67.0
	2	1.1	2	1.1			1	0.5	0	0
	0	0	0	0			0	0	0	0
-	-	-	-	-	-	-	2	1.1		

(62.1%), 스포츠 경기 및 영화관람비(58.2%), 대중매체 이용/대여비(56%), 교제활동비(53.3%) 순으로 지출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늘어난 휴일동안 가장 많은 가족원이 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외식이나 자동차로 여행 및 가까운 곳의 나들이, 그리고 쇼핑 활동이며, 기타 다른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을 늘리는 가정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12가지 관련 지출비목 가운데 가장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3가지 선택하게 한 결과 남편(131명)과 아내(134명) 모두 외식비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비(남편 105명, 아내 101명)라고 응답하였다. 여행비의 증가를 대답한 남편은 66명이나 되었으나 아내는 42명만 보고하여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레저스포츠비나 도서구입비, 대중매체이용비, 관람비 등도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물품구입비와 교제활동비를 늘어난 항목으로 지적한 사람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았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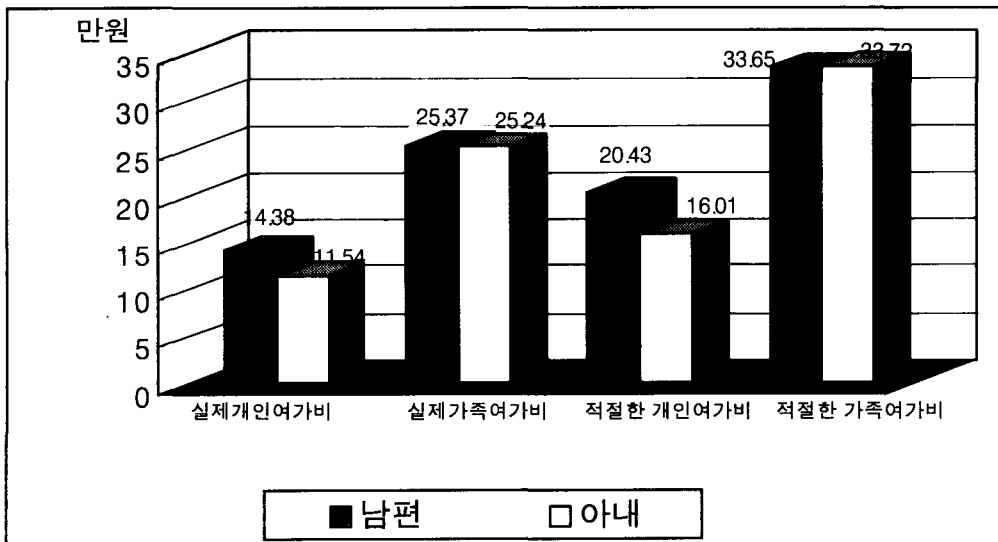
〈그림 2-1〉 지출이 가장 늘어난 항목 (중복선택)



여가 생활을 위해 개인이 실제 지출한 액수는 남편은 평균 14만 3천 8백원이며, 아내는 평균 11만 5천 4백원이며, 가족이 실제 지출한 액수는 남편과 아내 모두 평균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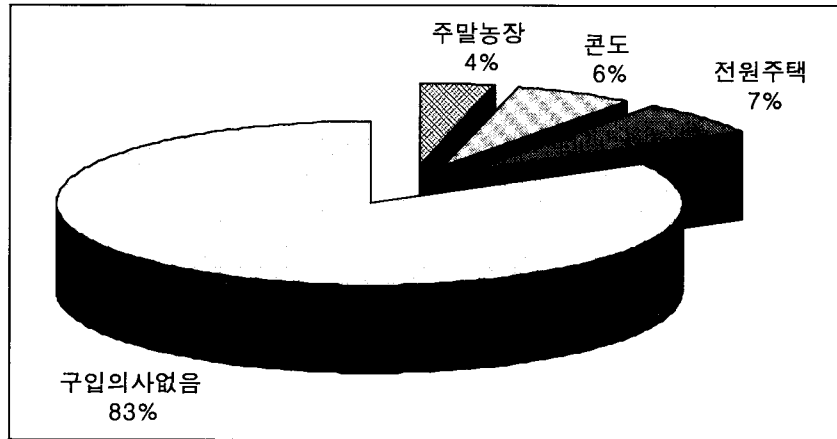
25만원 정도를 응답하였다(그림 2-2). 이와 함께 응답한 개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한 지출비는 남편은 평균 20만 4천 3백원, 아내는 평균 16만 1백원이었으며, 적절한 가족 여가활동의 지출비는 평균적으로 33만원 정도를 응답하였다. 즉 실제 지출한 가족여가활동비나 적절한 가족여가활동비는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지출비보다는 약 8만원 정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지만,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실제 지출비와 적절한 지출비는 아내보다 남편이 훨씬 더 높게 답하였다. 특히 남편들은 현재의 개인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비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4만 4천 2백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있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2-2> 남편과 아내의 개인 및 가족 여가활동 지출비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늘어난 주말동안 머물 주말농장이나 콘도의 구입이나 전원주택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17%만이 새로 구입했거나 고려중임을 밝혔고, 나머지 83%의 응답자들은 구입의사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벌써부터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서울에는 전셋집으로 보조 주거지를 두는 형태의 ‘역(逆) 세컨드 하우스’ 바람이 불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한국일보, 2001. 12. 20)는 기사와는 달리 아직까지 근로시간의 단축이 주택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3> 주말여가활동을 위한 새로운 주거공간의 소유/구입의사



### 3. 가사노동의 변화

주 5일 근무는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며, 남성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사노동 참여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한국 문화정책개발원, 2001)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여성들은 주 2일 휴무에 따른 지출증가로 인해 직업을 가지려는 동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된다(LG경제연구원, 200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따라서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주말여행의 일상화나 여성의 사회증가 참여 등으로 가사일을 할 시간이 오히려 부족해질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포장이사 대행업, 탁아소, 청소

#### <최근 일본의 유망 창업 아이템>

☐ 제과 커피점 : 제과류와 커피류 동시에 취급	☐ 남성 전용 미용전문점
☐ 멀티 약국 : 약국 + 슈퍼마켓	☐ 여성전용 이발관 : 잔털제거
☐ 일본식 빈대떡 전문점	☐ 목욕탕 크리닝업
☐ 캐릭터 상품점	☐ 쇼핑 대행업
☐ 식사재료 배달점	☐ 재고조사 대행업
☐ 허브 전문점	☐ 홈케어 대행업 : 관혼상제 등 집안의 대소사 처리

출처 : 데이터 리서치엔컴, 2000.5 ; LG경제연구원, 2000에서 재인용

대행업, 각종 반찬 서비스업 등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각종 서비스가 급성장하였다고 한다 (LG 경제연구원, 2000).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가정내 가사노동 영역별 증가현상을 살펴본 결과(표 3-1), 식생활 영역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증가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남편 56%, 아내 54.9%), 그 다음으로 변화가 없다(남편 42.9%, 아내 35.3%)와 감소했다(남편 1.1%, 아내 9.8%) 순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영역에서 남편은 변화가 없다(58.8%)거나 증가했다(41.2%)고 응답했으며, 아내는 22.5%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하고 67.7%는 변화가 없으며, 9.8%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주생활 영역에서도 남편은 51.6%가 증가했다고 했으며 48.4%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아내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2.7%이고 증가했다는 경우가 31.3%, 그리고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나 되었다. 남편의 경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영역은 가정관리 및 기타 영역(81.5%)과 가족 보살피기 영역(69.7%)이었다. 반면 아내들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증가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41.2%이고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0.7%이고,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17.5%나 되었다. 그리고 가정관리 및 기타 영역에서는 응답한 아내들의 47.3%가 변화가 없다고 했으며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7.9%,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2%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들은 식생활 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극소수(3명)를 제외하고는 가사노동 영역에서 이전에 비해 가사노동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가사노동 영역별<sup>3)</sup> 변화를 남편과 아내의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표 3-2) 의생활 영역, 주생활영역,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그 차이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남편들은 아내와 비교해서 세탁물 널기 등의 의생활영역, 집안 청소 등의 주생활영역, 자녀돌보기 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기 이전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설문지에는 가사노동의 각 영역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보기로 제시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때 각 영역의 분류는 통계청(2000)의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에 근거하였다.

- ① 식생활 영역 : 식사준비, 설거지, 간식 및 저장식품만들기 등
- ② 의생활 영역 : 세탁물 널기, 옷정리, 다림질, 바느질, 의류수선, 세봉, 뜨개질 등
- ③ 주생활 영역 : 집안청소, 방/물품 정리, 집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차량관리 등
- ④ 가족보살피기 : 아이들 돌보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등
- ⑤ 가정관리 및 기타 : 시장보기, 쇼핑, 가계부 정리, 은행관공서 일보기, 가정관리 관련이동, 기타가사일 등



<표 3-1>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가사노동 영역별 변화

가사노동의 변화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식생활영역	많이 증가했다(5)	3	1.6	8	4.4
	약간 증가했다(4)	99	54.4	92	50.5
	변화가 없다(3)	78	42.9	64	35.3
	약간 감소했다(2)	2	1.1	15	8.2
	많이 감소했다(1)	0	0	3	1.6
2.의생활영역	많이 증가했다(5)	2	1.1	3	1.6
	약간 증가했다(4)	73	40.1	38	20.9
	변화가 없다(3)	107	58.8	123	67.7
	약간 감소했다(2)	0	0	17	9.3
	많이 감소했다(1)	0	0	1	0.5
3.주생활영역	많이 증가했다(5)	3	1.6	4	2.2
	약간 증가했다(4)	91	50.0	53	29.1
	변화가 없다(3)	88	48.4	96	52.7
	약간 감소했다(2)	0	0	26	14.4
	많이 감소했다(1)	0	0	3	1.6
4.가족보살피기	많이 증가했다(5)	13	7.1	11	6.0
	약간 증가했다(4)	114	62.6	64	35.2
	변화가 없다(3)	54	29.5	74	40.7
	약간 감소했다(2)	1	0.5	29	15.9
	많이 감소했다(1)	0	0	3	1.6
	결측치	-	-	1	0.6
5.가정관리 및 기타	많이 증가했다(5)	5	22.7	9	4.9
	약간 증가했다(4)	107	58.8	60	33.0
	변화가 없다(3)	70	38.5	86	47.3
	약간 감소했다(2)	0	0	20	11.0
	많이 감소했다(1)	0	0	4	2.2
	결측치	-	-	3	1.6

그러나 이러한 남녀 차이는 실제 가사노동에 참여한 시간량과는 다르다. 응답자들에게 지난 1주 동안을 기억하여 하루 평균 가사노동에 참여한 시간량을 기록하게 한 결과(표 3-3), 남편들은 평일에 약 37분, 토요일에 약 1시간 22분, 일요일에 약 1시간 35분 정도인 반면, 아내들은 평일에 약 4시간 7분, 토요일에 약 4시간 33분, 일요일에 약 4시간 42분

<표 3-2> 가사노동영역별 변화에 대한 인식 : 남녀 차이 분석

주 5일 근무제 후 가사노동의 변화	전체 (평균)	t 검증				t 값
		남편		아내		
		평균	S.D.	평균	S.D.	
1. 식생활 영역	3.52	3.57	.55	3.48	.78	1.245
2. 의생활 영역	3.28	3.42	.52	3.14	.61	4.815***
3. 주생활 영역	3.35	3.53	.53	3.16	.75	5.470***
4. 가족보살피기	3.52	3.76	.58	3.28	.87	6.233***
5. 가정관리 및 기타	3.76	3.64	.54	3.88	8.70	-.374

\*\*\* p<.001

정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표 3-1>이나 <표 3-2>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그전과 비교해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량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거나 또는 그와같이 증가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남편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량은 아내에 비교해 매우 적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사실은 남편 스스로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과 아내들은 자신의 가사노동이 예전과 비교해 일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표 3-3> 가사노동참여 시간 : 남녀 차이 분석

(단위 : 분)

가사노동 참여시간	t 검증				t 값
	남편		아내		
	평균	S.D.	평균	S.D.	
1. 평 일	37.33	31.78	247.79	188.14	-14.47 ***
2. 토 요 일	82.66	75.37	273.68	199.66	-11.77 ***
3. 일 요 일	95.54	86.34	282.95	205.12	-11.15 ***

\*\*\* p<.001

한편,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도 늘어난 휴일동안 남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적은 이유는 그들의 성역할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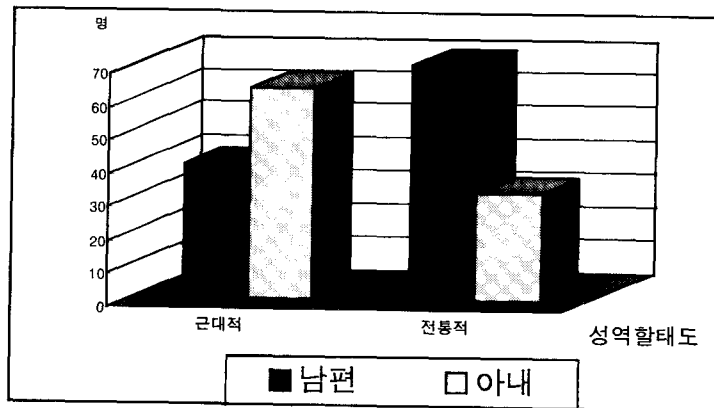
<표 3-4>와 <그림 3-1>에서 본 연구 대상자인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sup>4)</sup> 평균 점수를 제시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즉 남편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70명)이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40명) 보다 더 많았으며 반대로 아내는 근대

<표 3-4> 성역할태도 : 남녀 차이 분석

성역할태도	범위	t 검증				t 값
		남편		아내		
		평균	S.D.	평균	S.D.	
전통적 성역할태도	27-41	31.49	3.47	29.41	2.01	3.82 ***
근대적 성역할태도	11-21	19.58	1.81	18.06	2.79	3.34 **

\*\* p<.01 \*\*\* p<.001

<그림 3-1>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



- 4) 성역할태도 문항은 Osmond와 Martin(1975)의 Sex Role Attitude(SRA) Scale을 기초로, 그밖에 Scanzoni(1975)와 박태은(198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조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에 가까울수록 근대적 태도를 나타내며, 5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때 2번 문항은 반대로 recode하였다. 성역할 태도 점수는 10개 문항의 종합으로 하며, 그 범위는 11점-41점까지이다. 중간점수인 24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점씩 즉, 22-26점은 제외하고 11-21점은 근대적 태도로, 27-41점까지는 전통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중간점수를 성역할 태도 어느 한가지로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좀더 명확한 성역할 태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점수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63명)이 전통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32명) 보다 더 많았다. 특히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근대적 성역할태도는 각기  $p<.001$  수준과  $p<.01$  수준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들에 비해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 약간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증가현상이 매우 큰 변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 4. 여가활동의 변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가일수의 증대는 고용비용을 늘려 생산활동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레저활동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 산업의 신규수요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가생활이 휴식 위주의 패턴에서 취미생활, 자기개발, 레저 등 적극적인 형태로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 새로운 트렌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의 경험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한 방법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래 표는 2002년 LG 경제연구원에서 새롭게 형성될 여가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주 5일 근무에 대한 논의는 노동과 여가의 관계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산업사회는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삶이 강조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인간으로 소외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재미족보다는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적인 사고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가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남편들과 아내들이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표 4-1), 여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6.6%였다. 그리고 남편들은 노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2%로 아내의 7.7%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남편이 아내보다 여가보다는 노동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적으로 즐기는 여가활동과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sup>5)</sup>하여, 그 평균값을 합해 비교했더니(표 4-2), 남편과 아내의 개인 여

5)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개인여가활동

트렌드 1: 시간소비형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의 여유시간 확장</li> <li>■ 여가의 계획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소비형 여가에서 시간소비형 여가로 변화</li> <li>☐ 주말의 즉흥적 여가에서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풍조확산</li> </ul>
트렌드 2: 가족중심적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주의의 부활</li> <li>■ 가족 단위의 주말 스케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풍조형성</li> <li>☐ 가족동반 종합리조트, 오토캠핑, 주말농장 등 방문 사례 증가/ 부모와 자녀의 동반 스포츠 클럽, 취미 동호회 참가</li> </ul>
트렌드 3: 여가의 문화화 및 학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여가생활 욕구 증대</li> <li>■ 영화/연극일변도에서 탈피</li> <li>■ 연구모임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조 높은 여가, 지적인 여가에 대한 욕구 증대</li> <li>☐ 콘서트, 클래식, 재즈, 뮤지컬, 발레, 국악 등으로 다양화/ 소수 매니아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적 여가가 일상·보편화</li> <li>☐ 사후세계, 호러, 외계인연구, 오지탐방, 고고 유적지탐사, 인디언문화연구, 별자리탐사, 조류생태계연구, 전통문화탐구, 요리코디 등 연구활동이 여가의 한 형태로 등장</li> </ul>
트렌드 4: 여가의 디지털화와 탈(脫)디지털화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혁명 가속화</li> <li>■ 자연회귀형 여가문화 발전</li> <li>■ Indoor에서 Outdoor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ff-line과 on-line 연계형 여가문화 정착</li> <li>☐ 디지털 스트레스 때문에 주말만은 컴퓨터가 없는 여가생활 지향</li> <li>☐ 주말농장, 산촌 및 어촌 체험형 등 자연친화형 여가중대/ 스포츠 클럽가입이나 모험스포츠 즐기는 여가 중대</li> </ul>
트렌드 5: 참여형·체험형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에서 참여로</li> <li>■ 커뮤니티의 활성화</li> <li>■ 스포츠의 생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즐기는 수동적 여가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능동적 여가패턴으로 전환</li> <li>☐ 동창, 직장중심의 인간관계에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로 관심이전</li> <li>☐ 생활체육 개념 도입,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확대, 주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으로 정기적인 스포츠 클럽에 가입</li> </ul>

출처 : LG경제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p.33-37.

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은 “여가활동은 시간이 날 때 가볍게 즐기는 편이다”, “배우자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주말에 가족원 각자 독립적 활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다”, “나는 몰두해서 하는 한가지 이상의 취미활동이 있다” 등 4문항을 합해 그 범위는 6-19점이다. 가족여가활동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은 “가족관 같이 즐기는 여가활동이 더 즐겁다”, “주말에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을 내가 먼저 계획하는 편이다”, “주말에 집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보다는 집에서 하는 활동을 더 좋아한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 개인의 취미생활을 포기할 때가 많다”, “가족 야외나들이나 가족 여행을 다른 가족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recode) 등 5문항을 합해 범위는 12-22점이다.

〈표 4-1〉 여가와 노동의 관계 : 남녀차이 분석

“여가보다 노동이 더 중요하다”	남편( N=182)		아내 (N=18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5)	2	1.1	2	1.1
대체로 그렇다(4)	42	23.1	12	6.6
보통이다(3)	43	23.6	57	31.3
대체로 그렇지 않다(2)	76	41.8	95	52.2
전혀 그렇지 않다(1)	19	10.4	16	8.8
t 검증(t 값)	평균	S.D.	평균	S.D.
2.53 *	2.63	.99	2.39	.78

\* p<.05

가활동에 대한 의견 점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즉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개인적 여가활동에 대한 의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6).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여가활동에 비해 가족여가활동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내의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7).

〈표 4-2〉 개인 여가활동과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여가활동	범위	남편 (N=182)		아내 (N=182)		t검증(t값)
		평균	S.D.	평균	S.D.	
개인여가활동(4문항)	6-19	12.93 (3.23)	1.63	11.96 (2.99)	1.94	5.181***
가족여가활동(5문항)	12-22	16.27 (3.25)	1.80	16.06 (3.21)	1.71	1.135

\*\*\* p<.001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주말 여가활동 실태(8)를 비교해 본 결과, 가족과 함께 지내기, 문화활동, 미디어활동,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여행, 집안꾸미기 등 여가활동은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정원가꾸기는 p<.01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은 p<.05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모든 활동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

6) 개인여가활동의 평균값을 각 문항의 수로 나눈 값은 남편은 3.23, 아내는 2.99로 남편이 더 높게 나타났다.

7) 가족여가활동의 평균값을 각 문항의 수로 나눈 값은 남편은 3.25, 아내는 3.21로 비슷하지만 아내는 개인여가활동의 평균값인 2.99과 비교해 그 차이가 많이 난다.

8) 각 문항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자주한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이전과 비교해 여가활동을 자주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값에서 과거와 비교해 줄어든 항목은 집에서 쉬거나 TV보기 활동으로, 평균값이 3.73에서 3.71로 약간 감소하였다(표 4-3, 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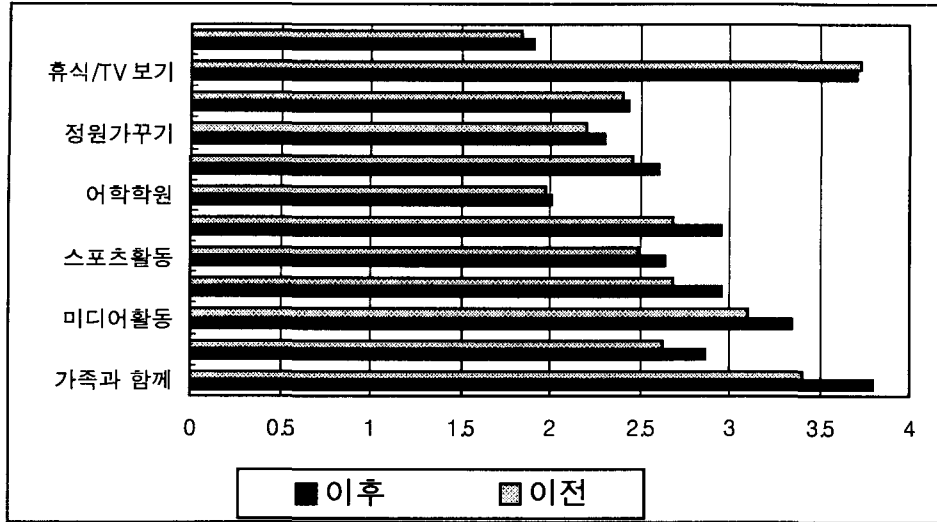
<표 4-3> 주 5일 근무제 실시전후의 주말여가활동

주말 여가활동	이전	이후	t 검증(t값)
	평균	평균	
1.가족과 함께지내기 (자녀와 함께 놀기, 쇼핑, 외식하기)	3.41	3.80	-11.718 ***
2. 문화 활동 (연극, 공연관람, 그림그리기 등)	2.63	2.86	-7.897 ***
3. 미디어 활동 (독서, 영화보기, 음악듣기 등)	3.10	3.35	-8.292 ***
4. 레저 활동 (산책, 등산, 낚시 등)	2.68	2.95	-8.001 ***
5. 스포츠 활동 (자전거, 롤러브레이딩 등)	2.49	2.64	-4.620 ***
6. 여행 (국내외)	2.68	2.95	-8.465 ***
7. 어학학원 수강	1.98	2.01	-.973
8. 집안꾸미기, DIY가구조립	2.46	2.61	-4.586 ***
9. 화초, 정원가꾸기	2.20	2.30	-3.485 ***
10. 혼자 쇼핑하기	2.41	2.44	-.884
11. 집에서 휴식 및 TV보기	3.73	3.71	.477
12. 사회봉사활동 (시민단체활동 포함)	1.84	1.91	-2.258 *

\* p<.05 \*\* p<.01 \*\*\* p<.001

이러한 여가활동 중 조사전 주말동안 한 대표적인 여가활동을 선택(3가지 중복선택)하게 한 결과(표 4-4), 남편(149명)과 아내(148명) 모두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편은 그 다음으로 미디어 활동(62명), 집에서 쉬거나 TV보기(62명), 스포츠 활동(42명), 여행(26명), 문화활동(24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아내는 그 다음으로 집에서 쉬거나 TV보기(91명), 미디어활동(70명), 문화활동(40명), 레저활동(37명), 여행(28명), 집안꾸미기/DIY가구조립(2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늘어난 주말동안 남편과 아내는 자녀와 함께 지내거나 쇼핑하거나 외식을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

<그림 4-1> 주 5일 근무제 실시전후의 주말여가활동



<표 4-4> 지난 주말 대표적 여가활동(중복응답)

지난 주말 여가활동	남편	아내
	빈도	빈도
1. 가족과 함께 지내기 (자녀와 함께 놀기, 쇼핑, 외식하기)	149	148
2. 문화 활동 (연극, 공연 관람, 그림그리기 등)	24	40
3. 미디어 활동 (독서, 영화보기, 음악듣기 등)	66	70
4. 레저 활동 (산책, 등산, 낚시 등)	60	37
5. 스포츠 활동 (자전거, 롤러브레이딩 등)	42	19
6. 여행 (국내외)	26	28
7. 어학학원 수강	5	3
8. 집안꾸미기, DIY가구조립	14	27
9. 화초, 정원가꾸기	3	6
10. 혼자 쇼핑하기	12	33
11. 집에서 휴식 및 TV보기	62	91
12. 사회봉사활동 (시민단체활동 포함)	7	6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경제생활측면의 <표 2-2>와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늘어난 휴일동안 가장 많은 가족원이 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외식이나 자동차로 여행 및 가까운 곳의 나들이, 그리고 쇼핑 활동이며, 기타 다른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을 늘리는 가정은 많지 않다")와 일치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182명의 남편들과 그들의 아내 182명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도입이라는 노동시간단축현상이 가정생활의 구조 및 관계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 경제생활, 가사노동, 여가생활 등 4가지 영역에 걸쳐 그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경험과 그로 인한 가정생활 및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부를 모두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편의 66.5%는 일반 상장기업에, 28.6%는 은행에 다니고 있으며, 4.9%는 공무원이었다. 그들의 아내 중 55.5%는 전업주부이며 나머지는 full-time 취업을 하거나 part-time 취업 및 부업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남편과 아내의 평균 연령은 각각 35.7세와 33.3세 였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대졸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자도 각기 29.7%, 14.8%나 되었다. 이들 가정의 한달 평균 가정소득은 283만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남편의 84.6%와 아내의 7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반수 정도는 주 5일 근무제가 가정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데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늘어난 주말동안의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증가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아내들은 가족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내 역할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며, 남편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생활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의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관계측면에서 조사대상자 부부들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족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관계적 측면은 그 빈도나 시간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관계적 측면의 변화는 조부모나 다른 확대가족 및 친지들과의 방문이나 교제횟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내 노인 세대들의 소외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제기된다.

둘째, 경제생활 측면에서 조사대상 남편들의 소득은 실제로 감소를 나타내지 않는 가정이 응답자의 75%나 되었고,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24%는 1달 평균 161,560원의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5일 근무제 실시후 이전과 비교해 외식비, 교통비 및 연료비의 지출, 쇼핑관련 비용 및 물품구입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종교활동 참가활동비, 통신비/장비구입비, 학습관련 강습비/교제비, 도서구입비, 레저스포츠 및 신체 단련비, 스포츠 경기 및 영화관람비, 대중매체 이용/대여비, 교제활동비 등의 지출은 반수정도가 지출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즉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늘어난 휴일동안 가장 많은 가족원이 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외식이나 자동차로 여행 및 가까운 곳의 나들이, 그리고 쇼핑 활동이며, 기타 다른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을 늘리는 가정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지출한 가족여가활동비나 적절한 가족여가활동비는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지출비보다는 약 8만원 정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지만,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실제 지출비와 적절한 지출비는 아내보다 남편이 훨씬 더 높게 답하였다.

셋째, 가사노동 측면에서 남편들은 아내와 비교해서 세탁물 널기 등의 의생활영역, 집안 청소 등의 주생활영역, 자녀돌보기 등의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기 이전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남편들은 식생활 영역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의 극소수(3명)를 제외하고는 가사노동 영역에서 이전에 비해 가사노동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 차이는 실제 가사노동에 참여한 시간량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타난다. 남편은 하루 평균 평일에 약 37분, 토요일에 약 1시간 22분, 일요일에 약 1시간 35분 정도 가사노동에 참여하지만, 아내들은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4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사실은 남편 스스로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과 아내들은 자신의 가사노동이 예전과 비교해 일

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늘어난 휴일동안 남편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적은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의 차이로 여겨진다.

넷째, 여가활동 측면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여가보다는 노동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아내들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여가활동에 비해 가족여가활동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내의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주말 여가활동은 집에서 쉬거나 TV보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증가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늘어난 주말동안 남편과 아내는 자녀와 함께 지내거나 쇼핑하거나 외식을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가 일부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노동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기업에게 줄 수 있는 부담감이나 노동자의 소득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이러한 조사가 시도되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소득수준이나 학력, 조사대상자의 연령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못한 점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거시적 측면의 효과와 노동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만 일관된 상황에서 개별 가정생활 및 개인/가족의 여가생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의의를 밝힌다. 이에 개인 및 가정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연구에서 밝혔듯이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근무시간의 단축과 여유시간의 증대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논의되어야 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높은 30대 연령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그들은 주 5일 근무로 인한 자유시간 증가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있게 평가했다. 따라서 이러한 젊은 연령층의 고소득 봉급생활자에게는 가족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동단축의 논의가 좀더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들이 늘어난 주말동안 선택한 새로운 여가활동은 여행이나 나들이, 쇼핑, 외식 등 가족중심적 여가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연구에서 예측한 문화화되고 학습화된 여가활동이나 참여형·체험형 여가활동의 증가는 많지 않았다. 이는 주 5일 근무가 일단은 가족간의 접촉빈도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족관계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계속 분석된 남편과 아내의 여가경험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 이러한 gender와 여가에 대한 논의는 가정내의 노동분담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남편들이 주 5일 근무제 실시후 주말동안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하는 시간은 아내와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말동안 부부의 생활구조가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분담의 문제는 성역할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부들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뿐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역할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넷째, 핵가족의 관계 개선이 오히려 다른 계층들, 특히 노인계층의 소외문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들의 가정내 소외문제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주·이창현·박소라(2002).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근로자들의 주말여가 변화. 여가문화학회 제 1회 포럼자료집.
-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 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주 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 여가문화학회(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 윤소영(2002).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여가문화학회 제 1회 포럼자료집.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1).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문화정책방향
- LG경제연구원(2000).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 LG주간경제 2001. 8. 3.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